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녹) 연중 제 27주일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총무: 이승원 비오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윤다혜 아멜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박수정 클라라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율리아

(녹) 연중 제 27주일 ( 23. 10. 8. )

\* 오늘 전례

오늘은 연중 제27주일이며 군인 주일입니다. 의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주님께서는 당신 포도밭인 교회를 끊임없이 가꾸시어, 가려 심은 새싹들을 자라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참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결합시키시어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기를 청하며, 또한 군인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신앙을 굳게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 말씀의 초대

• 제1독서( 이사야서 5,1-7 ):

1 내 친구를 위하여 나는 노래하리라, 내 애인이 자기 포도밭을 두고 부른 노래를. 내 친구에게는 기름진 산등성이에 포도밭이 하나 있었네.

2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가운데에 탑을 세우고 포도 학도 만들었네. 그리고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네.

3 자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밭 사이에 시비를 가려 다오!

4 내 포도밭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했더란 말이냐? 내가 해 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었느냐?

5 이제 내가 내 포도밭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 너희에게 알려 주리라. 울타리를 걷어치워 뜰어 먹히게 하고 담을 허물어 짓밟히게 하리라. 6 그것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어 가지치기도 못 하고 김매기도 못 하게 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올라오게 하리라. 또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7 만군의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나무라네. 그분께서는 공정을 바라셨는데 피 흘림이 웬 말이냐? 정의를 바라셨는데 울부짖음이 웬 말이냐?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4,6-9 ):

형제 여러분, 6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7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

8 끝으로, 형제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의로운 것과 정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또 덕이 되는 것과 칭송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9 그리고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 복음( 마태복음 21,33-43 ):

그때에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33 “다른 비유를 들어 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 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34 포도 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 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35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36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37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38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 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39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 버렸다.

40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41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 없이 없애 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4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 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4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 미사 전례

### 본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공로와 소망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감히 청하지 못하는 은혜도 내려 주소서.

### 화답송

◎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네.  
○ 당신이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하나를 뽑아 오시어, 민족들을 몰아내고 심으셨나이다. 그 줄기들은 바다까지, 그 햇순들은 강까지 뻗었나이다. ◎  
○ 어찌하여 당신은 그 울타리를 허물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따 먹게 하셨나이까? 숲에서 나온 멧돼지가 파헤치고, 들짐승이 짓밟아 버리나이다. ◎  
○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를, 당신 위해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  
○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오리다. 저희를 살려 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오리다. 주 만군의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 되리이다. ◎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 알렐루야.

###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총의 주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살피 주시어, 교회 안에서 책임을 맡아 열심히 봉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려고 애쓰는 평신도들에게 인내와 성덕의 은총을 주소서.

2.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에게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시어,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고 어려운 나라들을 먼저 살피며 공동선을 실현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3. 군인 주일을 맞아, 군인들과 군종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님,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저희를 굽어보시어 평화를 지켜 주시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과 군 복음화를 위하여 애쓰는 사제들을 돌보아 주소서.

4.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를 굽어보시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드리는 저희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시고, 저희가 언제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 영성체 후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성체를 받아 모신 저희가 이 성사의 힘으로 자라나  
마침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 ♪ 성가 ♪

입당 : 439 (부드러운 주의 손이)  
봉헌 : 212 (너그러이 받으소서)  
성체 : 167 (생명이신 천상 양식), 499 (만찬의 신비)  
파견 : 64 (3절) (이스라엘 들으라)

## 공지 사항

♣ 2023년 본당의 날 행사 및 추석 명절 잔치를 위해 수고와 도움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해주신 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군인 주일을 맞아 군 사목에 종사하고 있는 군종 사제와 수도자 그리고 군인 성당, 국군 장병들을 위해 묵주 기도를 바칩시다.

### ♣ 이탈리아 한인체육대회

- 일시 : 10월 14일(토), 10:00~18:00  
- 장소 : Sport Village Assago - Via Giuseppe di Vittorio, 20057 Assago(MI)

### ♣ 파스카 청년성서모임

- 15일 주일 미사 후, 사제관

### ♣ 모임/회의

- 사목회의 : 금일(8일) 미사 후

### ♣ 봉사자

	오늘 주일( 8일)	다음 주일( 15일)
제1독서	윤다혜 아멜리아	진하림 끼아라
제2독서	전민경 마리스텔라	이미영 클라라
복사	김익찬 암브로시오 강윤이 스텔라	이가은 마리아판체아 변가인 헬레나
계단·화장실	윤다혜 아멜리아	진하림 끼아라

###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 290.00 • 교무금 € 250.00